10만개 누에고치로 만든 '대형 누에'

국제농업박람회 랜드마크로

전남도, 10월 행사 앞두고 명품 전시관 조성

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하는 국제농업박람회(10월 5일~29일)에 누에 10만개로 만든 대형 설치작품을 선보인다.

전남도는 13일 "전남도농업기술원 일원에서 '녹색미래를 여는 생명의 세계'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10만개 누에고치로 만든 대형 누에가 등장, 진귀한 명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고 밝혔다.

이번 작품은 벌레들을 고부가가치 자원화하는 곤충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급성장함에 따라 이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작됐다.

누에는 예로부터 '하늘이 내려준 벌레'라 불릴 정도로 소중한 곤충으로 누에를 이용한 인공고막, 인공 뼈 등 의료용은 물론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도 개발돼 고부가가치 곤충산업을 이끌고 있다.

박람회 조직위는 누에의 이런 가치를 새롭게 부각시키기 위해 누에고치 10만개를 이용해 대형 누에 조형물을 이번 박람회장의 랜드마크로 제작하고 있어 관람객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 흑표범누에 등 35종의 다양한 색깔의 누에와 성장 단계별 곤충의 모습을 전시해 직접 보고 만지면서 관찰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제농업박람회조직위원회 박래복 사무국장은 "살아 움직이는 곤충이 돈이 되는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산업곤충관을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모두가 만족하는 명품 전시관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곤충은 해충을 잡아먹는 천적, 화분매개, 환경정화, 식용, 애완용, 의료, 교육용 등으로 이용 범위가 늘어나면서 시장규모는 현재 1500억원대이며 오는 2015년에는 3000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이선희씨 현재(사진 위 왼쪽)와 어렸을때 모습.

"45년전 헤어진 엄마 꼭 찾고 싶어요"

이선희씨, 고향 나주 찾아와 재회 호소

"45년전 헤어진 엄마를 꼭 찾고 싶습니다."

최근 나주시 주민복지과를 찾은 이선희씨(52·경남 김해 거주)는 어렸을 적 사진을 내밀면서 7살때 헤어진 엄마를 찾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이씨 기억에는 언니와 오빠가 있었고, 지금의 송월동 근처에 살면서 자전거를 탔으며, 할머니가 양잠을 했었다. 여섯살 때쯤 비오는 날 밤에 엄마 손에 이끌려 나주배를 손에 든 채 영산포에 있던 '희망원'에 맡겨졌다.

이씨는 영산포에 있던 희망원이 해체되고 광주 송정리에 있던 백선육아원으로 옮기면서 어머니와 헤어진 뒤 연락이 끊겼다. 이후 '김선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호적이 만들어져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씨는 "엄마는 일을 해야 했기에 자신을 육아원에 맡겨 놓고 1주일에 한두번씩 찾아왔기 때문에 버린 것은 아니다"라며 "오래전 남편과 사별한 뒤 아들과 딸이 장성해서 제 몫을 하고 보니 엄마 생각이 더 간절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에게 외갓집과 외할머니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마음에 묻어놓았던 혈육의 정을 이제야 풀고 싶다"고 재회를 호소했다. 연락처 경남 김해시 김해중앙교회(055-333-2771), 나주시 주민복지과(061-339-8507).

/중부취재본부=손영철기자 ycson@

나주시, '한전 KPS 연수원' 사업 변경 재심의 의뢰

영산강환경청 요구사항 반영 사업계획서 재작성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기관인 한전 KPS가 나주 다도댐 근처에 세울 계획이었던 나주연수원 건립이 최근 영산강 유역환경청으로부터 행정계획 재수립 통보를 받은 것〈광주일보 8월10일 2면〉과 관련, 나주시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사업계획서를 재작성해 재심의를 의뢰키로 했다.

13일 나주시에 따르면 영산강 유역환경청이 공문을 통해 "식생 및 생태적 기능 보전과 조망권 보호 등을 이유로 연구시설로의 입지가 부적절하다"면서 "혁신도시내 조성이나 대체부지를 마련해 계획을 재수립하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영산강 유역환경청이 제기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서 생태적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조망권 확보 및 경관보호 지역 등은 사업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골자로 사업계획서를 재작성해서 전남도에 심의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09년에 총 25만㎡ 규모의 부지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승인받아 연수원 건립을 추진하면서 15만㎡로 축소했는데도 이런저런 사유로 사실상 불가를 통보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영산강 유역환경청의 요구를 대폭 반영해서 부지면적도 7만여㎡로 줄이고, 건물예정 위치도 내륙으로 대폭 이동해 조망권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부취재본부=손영철기자 ycson@

복합 물류항만 위상 세계에 떨친다

여수광양항만공사 1주년…19일 뉴비전 2020 선포식

광양항 컨부두 전경

여수광양항만공사(YGPA·사장 이상조)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YGPA는 창립 1주년을 맞아 19일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종합항만'이라는 뉴비전 2020 선포식 및 창립 기념식을 갖는다.

'뉴비전 2020'은 변화하는 세계 항만물류 환경 속에서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항만산업 관련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종합항만을 지향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조성된 195만㎡ 규모의 동측 배후단지는 100% 임대 완료돼 25개 물류제조 기업이 가동 또는 준비 중에 있고, 최근 준공된 193만㎡ 규모의 서측 배후단지는 세계적인 부품소재 기업인 멕시켐이 3000억원을 투입키로 하는 등 고부가가치 항만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물동량 확보 마케팅도 적극 나서 기항선박을 주 72항차에서 75항차로 증차시키고 러시아 항로를 신규 개설했다. 또 실질적 물동량 창출을 위해 항만 배후단지에 우량 제조, 물류업체 입주를 추진해 화물 창출형 배후단지조성과 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맞춰 기존 선석이용 기준을 조정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방안을 내놓으며 다른 항만과 차별화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이상조 사장은 "공사 창립 이후 지난 1년간 유럽발 경제위기와 중국의 성장 둔화, 미국의 성장 지체, 화물연대 파업 등 수많은 악재가 많았다"면서 "일상화된 관행과 안일함으로는 급변하는 글로벌 물류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안정적인 성장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2011년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208만5000TEU, 총물동량 2억3400만t을 처리해 부산에 이어 국내 2위, 세계 16위 복합 물류항만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순천 교도소 '수형자 아버지학교' 이달말까지 진행

순천 교도소(소장 박현조)는 두란노 서원 '아버지학교 운동본부'의 지원을 받아 기독교 수형자 40여명을 대상으로 '수형자 아버지학교'를 개설했다.

'수형자 아버지 학교'는 전국에서 자원한 두란노 아버지학교 관계자와 봉사자 30여명이 참여해 10일부터 오는 31일 까지 매주 금요일 교도소 소내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이번 '수형자 아버지 학교'는 ▲수형자들에게 바람직한 아버지상을 확립하도록 돕고 ▲수용생활로 인해 멀어진 가족과의 갈등을 용서와 화해의 마음으로 극복할 용기와 치유의 장을 마련해 주며 ▲궁극적으로 가정을 회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돕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박현조 소장은 "한 사람의 수형자가 올바른 아버지상을 회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리잡을때 진정한 수형자의 사회복귀가 이뤄진다"며 "앞으로도 '수형자 아버지학교'와 같은 심성변화 교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농협·전경련 '1사·1촌 자매결연' 농촌 활력

농협 중앙회와 전경련이 공동으로 '농촌사랑 1사(社)·1촌(村) 자매결연'을 추진,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13일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영조)에 따르면 전남지역은 현재 1사 1촌 935쌍이 체결돼 농촌과 농업인에게 231억원의 실익이 제공되는 등 활발하게 도·농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

전남지역 자매결연은 기업체가 476곳으로 가장 많고 ▲관공서 125곳 ▲사회종교단체 45곳 ▲소비자단체 63곳 ▲농협 57곳 ▲기타 169곳으로 지식경제부, 특임장관실, 전남도청, 전남지방경찰청, 현대삼호중공업, 한국자산관리공사, 현대증권, 삼성생명·화재, KT, 금호 등이 참여하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보성군 농기센터, 벼 병해충 방제 총력

보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동식)가 벼 병해충 방제와 풍년농사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센터 직원들은 최근 각 읍·면 농업인 상담소장과 함께 마을을 찾아 벼 병해충 발생 상습지와 취약지에 대한 현장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는 최근 고온다습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멸구류의 발생이 많아지고 있어 방치했을 경우 8월 하순에 밀도가 급격히 증가해 벼의 품질저하와 수량감소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센터는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를 벼 병해충 중점방제 기간으로 설정하고, 긴급 예찰·방제 기술 지원반을 편성해 주요지역을 대상으로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보성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민들의 건강을 위해 고온기 방제 작업시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부취재본부=김용백기자 kyb@